

10월 7일 수 전국여성재단 이소장님

물배로 95리 저수를 맞는 유역이 형성된 세계여행의 남쪽 해안과 3월 8일에 지쳐
지고 약년에 이남의 유역은 1908년 미국의 망작공장 여행노동과 1만 5천여명이
'한날이래 남방의 여행이 다름없다'라 생각해 노동조합 결성의 뒤 그리고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은 주장하며 뉴욕의 루즈벨트 광장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으며
비롯된 것.

현재까지 곳곳에서는 이남을 맞아 지주층 학생들이 각양각색의 권위주의주의 등 다양한
행태를 표출했다. 특히 올해는 전원이 지적하는 이른바 권위를 앞세운 기풍이어서
예전의 학생의 권익신장과 해방정권 등이 학생운동계의 문제가 아니라 반정부로 집중된
학생들의 행태에 대한 감상이 돋보여졌다. (영남대) 이광수에서 학생해산을 위한 대책회의

'권력의 절대 지배'는 사실이다. 하지만
나) '반대파' 이것이 이념이 한 주제를 대치 주로 했다. 이념이 있는 것은 '평등'
인 것이 평등 없이 평등 없이 평등 없다'도 것이다. ✓ 1975년의 새겨져 있는 하의
스스로가 '평등, 평등, 발전' 이것도 모든 이러한 맥락에서 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인 생계제를 동유럽 전체 파괴하여 인종을 기념리
그리고 인종이 허락하게 ~~전쟁~~ ^{전쟁}은 여러 수백만의 양육을 인종을 비자 짓는 결과로
나기 위하여. 전쟁은 레르보라리 파괴하여 그와 무해하.

지난 3월 8일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주최한 제19회 한국 사회여성인물 기념
행사로 개최된 '대학로에는 메트로도 다채 시민단체들도 함께하고 있다' 500여
명의 남녀 인파로 열려진 연례는 뜨거웠다. 여성문제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고 있는 징후가 돋보였다. 이들이 함께 내세운 구호는 '성매매 방지법
즉각 제정' '여성의 힘으로 반성평등화' 그리고 '양성 평등을 위한 미션 활동대'
였다. 이러한 기치를 내세우며에는 2점반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해로 진행과정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유체의 흐름속도는 24로인의 정제유로
로 33만인경의 유속이 존재하고 있다. 흐름속도는 유체의 점성도, 인공물체의 크기, 인
공물의 표면, 기체의 점성도, 유체의 점성도, 유체의 점성도 등의 영향을 받고 있
는 것이 흐름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 33만인경, 24로인

최근 이르러 한반도에 불고 있는 전쟁위기는 애당초 이 생명권을 잉태하고 기르는
대내외적 환경을 대항하는 애당초의 우리 한사 없는 과제로서 생존권투쟁운동
이 무엇을 다하여 응징에 응징하는 방향으로 불어날까.

애생들은 바리 제사장기 평등을 넘어서서 심각적인 양생 평등의 실현을 위해 생평등 애생으로 온구하게 된데로써 한편 중개애생들 애생관으로 애생은 불리 0.28% 인데서 이리. 이리 권 세계적임을 추진하여 오는 평등애생 확보를 위하여 우리 애생들로 개량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행사의 취미 리아는 두 무엇보다도 대담한 '올해의 여성상' '올해의
여성권익의 디딤돌상' 수여이다. 이 상을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달고 여성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그에 반하여 불평등으로 인해
정신적 지렁이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어 자라게 된 이들의 정서들은
지나치게 장난감 형식이거나 인공적이어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리크전쟁이 커트르에 들어간 가운데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은
전쟁을 감수로 하는 '인간 참패'가 되어 전쟁을 막아 내겠다는 입장으로 전쟁의
필요자인 베그리드로 속속 모여 들고 있다. 세계의 이목이 온통 미소호와 베그리드
에 쏠려 있다.

세계연맹의 산 미국 미소호의 백악관 앞에서는 우리네도 방문한 바 있는 지구촌의
지리제거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조지 워싱턴을 둘러싸고
국제연맹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반리위기가 일어났다. 미국의 연방반리단체인 <코드 링크>
등 수천명의 연방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분홍색 풍선과 피켓을 들고 백악관
앞에서 행진하는 시위를 주도 하였는데 반인간복제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리얼리언> 연방회원들은 미소호와 리스앤젤레스 등지에서 평화를 촉구하는 나체
시위를 벌였다.

북한의 시드네에서는 연방들이 전쟁의 상흔의 유물을 끌고 나간 반리위기를 벌였
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에서의 격렬한 반리위기를 이어가 시위대원들이 경
합에 체포되게까지 하였을 소식도 들리고 있다. 다양한 움직임으로 전개한
전쟁반대 운동으로 지구촌 연방들이 하나로 뭉쳐 있다.

우리네에서는 지난 3월 8일 서울 대학로에서 5000여명이 함께한 '한국연방단체
연합회' 주관하는 제1회 세계연맹의 산 기념행사에서 '연방의 힘으로 반리운동'을
하는 주제를 내걸며 <한반도 반리평화 연방회원들>을 선포하고 종말공포에서
반리평화 행진을 촉구하고 내세우며 주권을 지키는 노소 연방들의 거침없는
움직임을 통해 세계의 반리평화운동에 함께 하였다.

지구상의 유일한 반리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남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핵 문제로 북지진 북한과 미국간의 긴장 관계로
이리크전쟁을 벌인 우리들처럼 할 수 없는 절박함이 우리를 무르고 있다.

수천리터 평화가 대한 조항은 전쟁을 임태하고 기르는 미네르사의
연방들에게 더욱 절박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념에 생각하게 한다.
전쟁의 미네르사 평화를 하고 있는 일부의 연방들이 국가의 존국주의 복합을
우려하며 반동적인 <전쟁으로 가는 길은 허락하지 않는 연방들의 연방모임>
이나 우리네의 <평화를 만드는 연방회> 등이 세계 연방들의 반리평화
운동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세계연맹의 산에 지구촌 연방들이 함께 품은 평화를 비는 마음
이 우리의 제법 많은 평화운동과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세상 꿈은 현실
로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연방은 분방을 거둬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이
필요하다. 누가 해줄까를 기대할 것이 아니다. 나만 지금 나서야 한다.

국민의국가를 발전시켜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의도적으로 강령을 개정하여 지난날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단호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길을 차게 밟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근기)

[illegible]

세계 여성의 날과 평화를 비는 마음

박영숙(한국여성재단)

UN이 선정한 세계여성의 날이 올해로 95회를 맞이하였다. 해마다 3월 8일에 지켜지고 있는 이날의 유래는 1908년 미국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1만 5천여명이 '하늘아래 남성과 여성이 다를 수 없다'며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그리고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주장하며 뉴욕의 루이스 광장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데서 기인한다.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각양각색의 집회와 시위,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특히 올해는 이라크 공격이라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짙게 드리운 시점이었어서 3·8 세계여성의 날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표정과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전 세계의 여성들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여성의 권익신장'과 '차별철폐' 등의 문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여성과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 큰 위협과 공포가 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소망한다는 바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다. 하지만 '여권에 앞서 인권을 위해서 전쟁에 반대한다' 이것이 여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구호였다. 여성들이 믿는 것은 '평등없이 평화없고, 평화없이 평등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여성해방운동과 평화의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75년도의 세계여성의 해의 슬로건이 '평화, 평등, 발전'이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전쟁은 인류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며 인간을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의 인권을 마구 짓밟는 결과를 낳기 일쑤이다. 전쟁은 테러보다 그 피해가 더 크고 무섭다.

지난 3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한 제19회 한국 여성의날 행사가 개최된 대학로에는 예년과는 달리 시민단체들도 함께 하고 있어서 5,000여 명의 남녀인파로 연대와 축제 한마당이 펼쳐져 열기가 뜨거웠다. 여성문제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에 변화가 일고 있는 징후가 돋보였다. 이들이 함께 외친 구호는 '성매매 방지법 즉각 제정' '여성의 힘으로 반전평화'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 확대'였다.

이러한 기치를 내세운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다. 얼마전 형사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매매는 24조원의 경제규모로 33만 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다. 성매

때는 여성의 성상품화, 인권문제만이 아닌 탈세와 과소비, 기업과 노동시장의 왜곡, 청소년의 윤락가 유입 등의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는데서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은 시급하다.

최근 세계를 들끓게 하고 있는 이라크와 한반도에 불고 있는 전쟁위기는 여성들이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어머니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과제로서 전세계인들과의 연대로 반전평화운동에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성들은 법과 제도상의 평등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성평등 예산을 요구하게 된 데에는 현재 국가예산 중 여성관련 예산은 불과 0.28%인데서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등예산 확보운동에 우리나라 여성들도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올해의 여성상' '올해의 여성권익의 디딤돌상' 수여이다.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여성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다. 그에 반해 불명예스럽게 걸림돌의 지칭을 받은 사람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⁵⁴⁰⁷의 걸림돌은 지난해 장상 총리서리가 임명되었을 때 '대통령 유고시 어떻게 여성총리에게 국방과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등의 여성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과 서울시 행정의 효율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지난 해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해 여성정책을 뒷걸음질치게 만든 서울시장에게 돌아갔다.

이날 대학로에서의 행사를 마친 대열은 종묘공원까지 행진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구호를 외치는 노소 여성들의 거침없는 몸집을 통해 우리들 자신이 크게 변화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거리의 구경꾼들의 호의적인 눈빛에서 옛날과는 달라진 세상을 실감하면서 차별없는 평등세상, 전쟁없는 평화 세상의 꿈은 실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여성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자.

기업의 여성사랑 캠페인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21세기 초 여성능력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새끼라고 한다. 20세기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세계화, 지식정보화, 그리고 민주화의 3대 흐름이 진행되면서 갈수록 대량의 인재가 지나가고 현재와 상생의 동력을 만들어주는 여성이 지배하는 21세기 초 여성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여성의 힘에 없이는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 국제사회에서는 한나라의 발전상을 21세기 여성의 자위로 평가하고 있다. 우연이 2000년도에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국민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측정할 무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146개국 중 29위인 데 비해 '여성의 권한 척도'는 64개국 중 61위인데다 우리나라의 여성리더들이 일흔 삼살한리를 짐작할 수 있어 이미 사랑이 시급한 것이다.

국민의 36부가 2000년도를 여성발전의 참된 원년이 되게 하기 위해 '여성부'를 설치하고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도 고무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각 영역에서 여성들이 외부로 느끼는 불편을 이룩해 내고 있는 것도 밝은 미래를 전망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는 여전히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남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00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각양각색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는 여러 일로 합동미 프로그램이다. 3년으로 사회변화를 맞이하며 여성을 위한 최초의 공식기관인 한국여성재단을 출범시킨 것도 바로 그러한 문제해결을 함께 해결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재단의 기본법인 기능은 기업에 여성하고 기업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단체활동을 지원하는데 있고 그리고 더부러 사회 선상을 위한 투쟁하고도 여성들을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의 100여개의 단체활동을 위해 100여억원의 지원이 가능 해졌고 10만여명의 참여로 만들어진 73억여원 규모의 수익금과 지원기금 등이 있어서 가능했다. 우리들의 꿈인 우리의 대표들 다른들이 함께 유익 서는 세상만들기에 갖은것을 기꺼이 자게주듯 따뜻한 기부자들과 단체의 현명한 활동가들의 공동작업을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여성재단이 크게 힘을 얻게 된 것은 기업이 여성사랑을 통해 이익을 얻는데 있다. ... 여성전용 이동전화 서비스인 STH 드림가 '드림가 여성사랑 캠페인'을 여성재단과 연대해서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이 캠페인은 드림가 광고에 출연하는 여성모델인 리더들의 출연료 50% 와 드림가 고객의 가입비 1%를 여성재단이 '드림가 여성사랑 기금'으로 적립하고 2수익금으로 평등세상 만드는 일을 지원한다 한다.

여성으로 인해 얻어진 이익은 여성사랑에 환원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단순한 이익의 실현을 넘어 여성의 사회참여와 국가경쟁력 향상의 사회공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진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은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를 선택기준에 달리 있으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기업의 여성사랑 캠페인

1월 31

박 영 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21세기는 여성능력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시기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지식정보화, 그리고 민주화의 3대 혁명을 통해 갈등과 대결 중심의 시대에서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화해와 상생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서고 있다. 이 새로운 시기는 유연성과 감수성, 나눔과 보살핌의 특성을 지닌 여성들의 참여를 매우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참여 없이는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한 나라의 발전상을 그 나라의 여성의 지위로 평가하고 있다. UN이 2000년도에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국민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146개국 중 29위인데 비해 '여성의 권한척도'는 64개국 중 61위인데서 우리나라의 여성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

국민의 정부가 2000년도를 여성발전의 참된 원년이 되게 하기 위해 '여성부'를 설치하고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여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룩해내고 있는 것은 밝은 미래를 전망하게 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공식 또는 비공식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도전해야 하는 과제들은 남아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00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²⁴³¹각양각색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활동비 조달 문제이다. 3년 전 새 천년을 맞이하며 여성을 위한 최초의 공익재단인 한국여성재단을 출범시킨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해결을 함께 해본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재단의 기본적인 기능은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단체활동에 지원하는 일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투명하고도 명예로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여성사랑 캠페인

박 영 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21세기는 여성능력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세기라고 한다. 20세기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세계화, 지식정보화, 그리고 민주화의 3대 혁명이 진행되면서 갈등과 대결의 시대는 지나가고 화해와 상생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유연성이 지배하는 21세기에는 여성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여성의 참여 없이는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한 나라의 발전상을 그 나라의 여성의 지위로 평가하고 있다. UN이 2000년도에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국민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146개국 중 29위인데 비해 '여성의 권한척도'는 64개국 중 61위인데서 우리나라의 여성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이 시급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2000년도를 여성발전의 참된 원년이 되게 하기 위해 '여성부'를 설치하고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여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룩해내고 있는 것은 밝은 미래를 전망하게 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공식 또는 비공식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도전해야 하는 과제들은 남아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00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각양각색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활동비 조달 문제이다. 3년 전 새 천년을 맞이하며 여성을 위한 최초의 공익재단인 한국여성재단을 출범시킨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해결을 함께 해본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재단의 기본적인 기능은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단체활동에 지원하는 일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투명하고도 명예로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의 100여 개의 단체활동을 위해 10여 억 원의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10만여 명의 참여로 만들어진 73억 원 기금의 수익금과 지정기탁금이 있어서 가능했다. 우리들의 꿈인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이 함께 우뚝 서는 세상 만들기는 가진 것을 기꺼이 쪼개주는 따뜻한 기부자들과 단체의 헌신적인 활동가들의 공동작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여성재단이 크게 힘을 얻게 된 것은 기업이 여성사랑운동을 시작한데서이다. 여성전용 이동전화 서비스인 KTF드라마가 '드라마 여자사랑 캠페인'을 여성재단과 연대해서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이 캠페인은 드라마 광고에 출연하는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의 출연료 50%와 드라마 고객의 가입비 1%를 여성재단의 '드라마 여자사랑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수익금으로 평등세상 만드는 일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성으로 인해 얻어진 이윤을 여성사랑에 환원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단순한 이윤의 사회환원 이상의 사회변혁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사회공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각자적인 기부문화 확산은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품 선택기준에 달려 있으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정년퇴직과 사회공헌 활동

박영숙 (보재간 이사장)

취직 2030 대는 5060 이보다 주행이라 함께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어
오고 있다. 나이를 잊고 보람을 찾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6090 에 대해
있는 세대들은 설악하기 어려운 우울하고 무력해지는 나날으로 물려고 있는
한편 주자 세대의 활동 찾기에 골목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평생의 생애에서 정년퇴직을 강했는데 그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보람을 찾지 못하고 허송세월 하는것이 안타깝다. 이따금
세대들은 생애를 갖는것을 경유로 평소 해준으로 완성되지 않는
그러나 제도가 퇴직시절에 없는 일거리들로 무력함을 느끼고
영양도 떨어지고 이미 노년이 되어 있어서 일거리를 찾는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퇴직후의 삶도 활기찬 현상처럼 만들어야 할것이다.

사람들의 80년 인생중의 4분의1인 정년퇴직후의 삶도 생애의 일부이다. 이것
은 <나만의 생>으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때부터 의무
감이나 구속에서 벗어난 자기의 삶을 향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삶>을 사는 것이다. 인생의 인생이 행복했느냐 아니면 불행했느냐의
판가름이 이 퇴직후의 4분의1의 인생에서 판가름 된다. ^{그동안} ^{이제까지} ^{앞으로} ^{이제부터}

대체 무엇이든 정년퇴직 후의 삶의 양상을 네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① 목적
없는 삶 ② 재능과 관록을 살려서 일거리를 찾아 계속 일하는형
③ 취미생활을 만끽하는형 ④ 자원봉사 또는 자원활동을 하는 사회공헌 활동
으로 삶의 보람을 찾는형이다. 물론 이들을 몇개 형태로 집하는 경우가
있을것이다.

취직 6090 세대간에는 주자의 삶으로 살아야 할 2030 대는 1030 대는 의
미가 작아지고 자기의 자기를 고용하는 신종업종을 구상하고 일거리를
찾는다. 이들의 인생에도 그 종류가 다양하면 한수씩 이수하는 더욱 깊은지
게 될것은 분명하다. 이들이 지내고 있는 정년퇴직 일거리의 의의가 많을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질것이다.

평생교육, 인주교육, 평생교육, 건강에 있어서 기분이되는 것들의 빠른
변화를 열거하고 있는 한국여성재단의 소기의 목적달성의 성공에따라
신종업종의 다양하고 있는 이들의 참여도해 있다. 재단의 미래는
이들이 참여하도록 정년퇴직 후의 삶에서 이들의 활동을 보상을 받을수
있게 해야 할것이다.

“여자의 적은 여자?”에서 이제는 “여자가 여자를 돕는다”

흔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은 ‘명예남성’이라는 별칭을 부여받기도 한다. 이는 여자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남성의 그것과 비슷하고 오히려 한 발 앞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여성성을 살려 생각하고 활동했다가는 사회적 성공은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성성을 바탕으로 성공한 여성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였기 때문에 여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오히려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성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이고 냉정하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위나 자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여성들끼리 서로를 세워주기 보다는 깎아내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 여성, 환경의 시대, Age of Pink라고 하는 21세기에는 과거와 같은 가정은 통하지 않게 되어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성성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섬세함, 창조성, 투명성, 살림의 특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선배여성들의 노력으로 여성들을 위한 자리와 지위가 보다 넓게 열린 이 때에는 여성들간의 연대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

사전적 의미는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숭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의 동료 여성들을 사랑하는 의미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생각한다.

이를 실천한 사람들의 예
KTF여자사랑기금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델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귀족 등의 고위층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은 더욱 확고했는데, 한 예로 한니발의 카르타고와 벌인 16년 간의 제2차 포에니전쟁 중 최고 지도자인 콘술(집정관)의 전사자 수만 해도 13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로마 건국 이후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든 것도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귀족들이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귀족층의 숭선수범과 희생에 힘입어 로마는 고대 세계의 맹주로 자리할 수 있었으나, 제정(帝政) 이후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서 발전의 역동성이 급속히 쇠퇴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도덕의식은 계층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득권층의 숭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아들 앤드루가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6·25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당시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의 아들은 야간폭격 임무수행 중 전사했으며,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이 6·25전쟁에 참전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시신 수습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배달하고 4월25일 2-3년 17가 X-mas을 지내 유장 삼촌 2월10

선덕원에는 만 2세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여자 어린이 및 청소년 60여명이 함께 살고 있다.

율리아나 미용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나간 날, 포근한 공기 속에 겨울눈이 비와 함께 섞여 내리고 있었다. 선덕원의 정은득 원장은 선덕원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비록 부모와 함께 살수는 없지만 선덕원의 선생님들, 선덕원을 돕는 여러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비교적 어려움없이 밝고 명랑하게 자라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동안 선덕원에서 해온 일, 이제는 성인이 되어 스스로 가정을 이룬 선덕원을 거쳐 간 아이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율리아나의 젊고 예쁜 언니들이 거울을 펴고 가운과 도구를 정리하는 동안 아이들은 자못 신기한 눈으로 구경하다가 저마다 마음에 드는 헤어디자이너 언니를 따라 차례로 줄을 서기 시작하였다. 앞머리는 어떻게 자르고 뒷머리는 층을 내서 바깥으로 빠침 머리로 해주고, 애는 어떻게 해주고, 재는 어떻게 해주고... 염색은 해줄 수 있느냐... 언니가 입술에 바른 빨간 색 루즈 나도 발라달라. 이거 지워지느냐 등등.... 종알종알 떠드는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고 명랑하게 행복하게 번져갔고, 머리를 만져주는 헤어디자이너들은 더욱 바빠 가볍게 움직였다. 돌아오는 차안에서야 디자이너들은 얼마나 바쁜 하루를 보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만 2세 2월10일 김리 돈매 1월10일
 만 2세 장아이 2월10일
 만 2세 2월10일